

# 17~18세기 동북아시아해에 대한 러시아의 지리적 조사

Sergei Ganzei, Peter Baklanov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리연구소)

## <국문요약>

16세기 이후로 러시아인들은 우랄산맥을 넘어 시베리아로 이동을 시작하였다. 새롭고 풍성한 미지의 땅에 대한 지리적인 발견이 그들을 매료시켰다. 17세기의 중요한 발견은 러시아인 여행가들, 주로 cossack의해서 이루어 졌다. 1639년 Ivan Moskvitin은 Ulie 강을 따라 Okhotsk 해에 도착하였다. 그 일행은 바다를 발견하였고 Lamskoe라 불렀다. 후에 이 바다는 Okhotsk 해라 불리었다. 18세기에 Okhotsk와 항구는 해양탐험과 지리적 발견에 중요한 근거지가 되었다. 1639년 러시아인이 처음으로 태평양해안에 도착하였는데 이때가 바로 러시아인들이 지리적인 발견을 시작한 때였고, 아시아의 북동부해안과 태평양 연안의 개발과 연구를 시작한 때였다.

17세기 말엽에 처음으로 북동부연안과 바다에 대한 완전한 자료가 수집되었다. 이러한 것은 지리적인 지도들-'drawings'을 통해서 증명된다. 17세기의 지도학적인 자료들은 경위도 땅이 없어서 지리적인 지도로써 인정받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료들은 그 당시의 지리적 사고의 수준을 보여 준다.

Godunov에 의해서 만들어진 "drawings"은 그 당시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지리적 성과물이다. 목록은 Amur강을 포함한 시베리아 일대의 하천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1672년에 만들어진 "A list from the drawing Siberian Lands"는 시베리아 동부에서 marine aquatory의 이름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다.

1687년 Nic Witzen의 "Noord en Oost Tartarye"는 Godunov지도의 사본이지만 sea aquatory에 대한 많은 지리적이 이름을 찾을 수 있다: 바다는 동해(Oceanus Orientalis)라 불리었고, Amur 해는 Amur강 어구의 반대편에 위치해 있다. 한반도는 섬으로 나타나고 중국해는 한반도의 남서쪽에 위치해 있다.

Semen Remezov의 "Drawing book of Siberia"는 더 유명한 지도이다. sea aquatory는 동쪽에 sea ocean(Akyan)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캄차카, 일본은 섬으로 나타나고, 한반도, Amur강, 중국과 많은 것들이 지도상에 나타난다.

17세기 후반까지 Nikolai Spaphary는 중국의 국경과 그 국경을 넘어 있는 섬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이 섬의 이름은 Japoniya이다. 이 섬은 중국보다도 더 풍성한 곳이었다. 그는 여행을 결과를 "The description of the first park of the Easth called Asia, the Chinese Kingdom with other cities and provinces"라는 제목을 책으로 출간하였다. 이 책에서 그는 아시아의 동부는 동해에 의해서, 북쪽으로는 Ocean Arctic Sea에 의해서, 중앙은 인도양과 흑해에 의해서 세계의 다른 부분과 분리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동아시아 해양에 대한 그의 지리적인 업적은 그당시 러시아 정부의 두가지 기본적인 전략적 목적, 즉 아메리카 항로와 인도와 중국 항로를 찾는 데 매우 중요하였다.

1708년 Michail Nasedkin은 캄차카로부터 남쪽으로 해협을 넘어 육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Danil Antsipherov는 북부의 쿠릴제도의 일부를 조사하였다. 1715-1717년 Kuzma Sokolov는 캄차카의 서쪽을 조사하였고, 바다를 통해서 처음으로 Okhotsk에 도착하였다. 1725-1743년 Vitus Bering은 시베리아 태평양 탐험을 통해서 베링해협을 발견하였고, 1727년 A.Shestakov와 D.Prelutsky는 북해에서 동해로 항해하고 Amur어구에서 일본으로 가는 항로를 찾기 위하여 탐험을 조직하였다. 1739-1742년 M.Shpanberg의 파견대는 쿠릴제도와 사할린의 일부를 지도화하고 조사하였고 사할린의 동쪽 해안을 따라 여행을 하였고 마침내 그들은 처음으로 북쪽으로부터 일본으로 가는 길을 발견하였다.

1725년 Nerenberg Goman의 Atlas는 Chukotsk에서 일본에 이르는 지역을 보여 주고 있다. 사할린 북쪽에 위치한 바다는 Lamskoye, Penzhinskoe Sea로 불리고 있고, 사할린의 남동부에 위치한 바다는 동해(Eastern Ocean)로 불리고 있다. 1759년 이후에 이 지도는 "The newest outlines of Asia"라는 이름으로 다시 출판되었다. 일본열도를 따라 동쪽으로 Japanese marginal sea가 보이고 서쪽으로는 Eastern sea of Japan이 보인다.

1734년 I.Kirilov는 "A general Map of Russia"라는 지도를 출간하였다. 이 지도에서 현재의 Okhotsk 해는 캄차카 해로 불리고 있고 남동쪽에는 동해(Eastern Ocean)가 위치해 있다. 1742년 V.I.Kazantsev의 "Penzhinskoye Sea from Okhotsk Sea to Great River and Kamchadaliya"에서 Amur강의 남쪽에 위치한 바다를 Japponiya라고 부르고 있다.

동아시아에 대한 지도학적인 생각에서 러시아와 유럽의 지도학자들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1739년 Seuter의 러시아 지도는 한 예가 될 수 있다. 이 지도에서 일본해는 현재의 베링해 위치에 있고, 사할린 섬은 Amur강보다 더 북쪽에 놓여 있다. 한반도와 일본과 캄차카 반도 사이의 바다는 캄차카 만이라 쓰여 있다. 18세기 초반 탐험에 근거하여 1745년 Russian Atlas가 출판되었다. 현재의 오호츠크해 부근에 Kamchatkoe Sea가 있고, 캄차카의 동쪽에 Pacific Ocean이 있다. 사할린의 동쪽에 Pacific Sea가 놓여 있다. Eastern Ocean, Pacific Ocean, Eastern Sea, Pacific Sea는 이 당시의 지리적인 문헌에서 동일어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18세기의 러시아 지도학자들은 현재의 오호츠크해와 베링해를 지도상에서 보여주고 있다. 사할린 남부, 일본과 아시아 대륙사이에 있는 바다는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1771년 한국해(Sea of Korea)라는 구체적인 이름이 이 바다에 붙여졌다. 브리테니카 사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이름은 동아시아에 관심이 있는 러시아의 지리학자들에 의해서 널리 사용되었다.

18세기에 베링해는 pacific, Eastern, Japanese, Anadir해라고 불리었다. 18세기에 현재의 오호츠크해는 Lamskoye, Penzhinskoye, Kamchatka Bay, Okhotskoe 등과 같은 많은 이름으로 불리었다. 일본 제도와 아시아 대륙사이의 바다 이름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18세기에 이 바다는 Eastern, Pacific, Chinese, Tatar, Japan, Parginal Japanese, Sea of Japan, Sea of Korea 등의 이름으로 불리었다.

19세기 초에 해상을 통하여 식민지를 획득하려는 생각이 등장하였다. 결과 19세기 초반에 많은 탐험이 이루어 졌다. I.F.Kruzenshtern과 Yu.F.Lisynsky의 탐험은 일본과 새로운 무역관계를 형성하기위한 것이었다. 그들의 탐험은 일본의 동해안, 사할린의 남쪽해안을 따라 반복되었다. 1813년 이 탐험의 결과로 "The Atlas of the Northern Part of Eastern Ocean"이라는 제목의 아틀라스가 출판되었다. 이 지도에서 Anadir해는 베링해의 북쪽에 표시되어 있고, 사할린 해는 오호츠크해의 남쪽 사할린의 동부 해안을 따라 보여진다. 일본과 아시아 본토 사이의 바다는 일본해(Sea of Japan)이라 불린다. 이후의 모든 러시아의 지리 지도에서 동해를 일본해라 불렀다.

러시아 동부의 모든 바다는 상이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일본해는 동해(Eastern), 한국해(Sea of Korea), Pacific, Tatar, Sea of Japan등과 같은 상이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이후 일본해라는 이름이 러시아의 지리적인 문헌속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오랜기간 동안의 고립과 일본이 러시아와 유럽의 여러 국가들과 무역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 특히 중국보다도 더 풍성한 이 나라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 일본은 그들에게 있어 '동인도(Eastern India)'였다. 이 나라와의 잦은 접촉 시도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결국, 이 모든 사실이 러시아의 지리학자들에게 일본해라는 이름을 사용하도록 만들었다.